



우리나라 농촌 살림집의 변천과 과제

이 신 호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교수)

살림집의 변천 과정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살림집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속하지만, 지배계층의 집인 대가집은 아니고, 농업이 주업인 농민들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살림집은 바로 농촌의 생활과 연결되어 구성되는 생활 공간으로 농공학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살림집 역사는 매우 깊다. 살림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기본조건인만큼, 인류 역사 초기부터 살림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 여러 형태의 살림집을 지어 왔으며 자연환경과 생산활동에 맞게 발전해 왔다. 이 가운데서 기후는 살림집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 눈과 비, 바람에 대응하여 살림집을 만들었다. 물론 사나운 짐승이나 외적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했고, 밀집 지역에서는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했다. 또한 생활양식이 다르거나 사회조건에 따라 살림집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나무통, 바위밀 같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그 후 자연의 피해를 일정하게 막을 수 있는 초막을 치기도 했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동굴같은 자연조건을 그대로 이용하거

나 임시 초막을 치지 않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집터를 잡고 필요한 재목을 채취하여 다듬어 집을 지었다. 모두 깊숙한 움집이거나 반움집이었다. 집짓는 경험이 쌓이면서 집모양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정착하여 農耕 생활이 시작되면서 깊은 움집으로부터 지상 가옥에 가까운 반움집으로, 벽체는 없이 서까래 자체가 지붕이자 곧 벽인 집으로부터 서까래가 땅에서 분리되고 벽체가 있는 집으로 발전한 것이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집구조와 형식이 새롭게 바뀐다. 이 시기에는 두칸짜리 집이 널리 이용되었으며, 돌로 벽을 쌓기도 했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새초로 엮은 뜬이나 나무껍질을 까는 대신 판자를 깔았으며, 기둥 밑에 주춧돌을 놓기도 했다. 또한 기둥을 여러 줄로 세우고 들보, 대공, 용마루를 올린 다음 서까래를 걸어 만든 배집지붕 뿐만 아니라 네면에 물매를 둔 우진각지붕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시 살림집은 입면 윤곽으로 볼 때 움집-반움집-지상 건물에 가까운 움집형태로 발전했으며, 평면윤곽으로 볼 때 둥근꼴로부터 모가 죽은 네모꼴로 발전하였다.

철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살림집은 움집에서 점차 지상건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기둥-보'식 구조가 한층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격적인 농경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지상가옥은 난방시설, 곧 구들을 전제로 이루어

어졌다. 고조선에서 널리 쓰인 구들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에서 보이듯이 화독 돌레에 납적 돌을 둘러놓거나 저장음을 만듬으로써 열을 발생, 저장하여 음식을 가공하던 시설이 발전한 것이다. 화독대신에 긴 고래를 만들고 고래에 불을 때서 바닥을 덮히고 실내온도를 확보하는 난방방식은 우리식 온돌의 시초형이다.

일찌기 고조선시대에는 살림집 건축이 크게 발전했으나 농민들은 보잘 것 없는 움집에서 살았다. 그것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운 큰 지상건물이나 기와를 이은 호화로운 집터가 발굴되는 반면, 다진 바닥 위에 그냥 기둥을 세워 만든 얇은 움집, 윗부분이 임시 구조로 된 집들이 발굴되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고구려시대에는 농민들 사이에 구들이 많이 쓰였다. 상류계층에서는 철로 만든 화로나 부뚜막 같은 설비(정주간)를 방안에 두어 난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나 신라에서는 온돌에 대한 기록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는 겨울을 이기기 위해 화덕이나 화로를 사용 하였다. 여름 더위를 이기는 일이 더 중요했을 것이므로 요즘의 원두막같은 집이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을 것이다.

발해의 살림집터들은 여러 곳에서 발굴됐는데, 이런 집들은 지배계급을 위한 집들이었고, 농민들을 위한 살림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후기 신라의 살림집터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록에 따르면, 살림집은 주로 목조였고 널마루를 주로 썼으며 숯으로 화롯불을 피운 듯하나 온돌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발해사람들은 고구려의 살림집 전통을 계승하여 내륙지방 조건에 맞게 그것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후기신라사람들은 남부지방의 지리나 기후조건에 맞게 살림집을 지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살림집 유형이 다양해지고 건축 장식이 더욱 발전했으며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널리 이용됐다.

고려시대에는 살림집 원형이 현존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발굴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온돌과 마루가 같이 쓰인 살림집이 생겼다. 온돌이 중심인 북쪽지방 문화와 마루가 주로 쓰인 남쪽지방 문화가 교류된 시기가 이때이다. 경북 문경명 새재 첫 관문 원터에서 구들고래시설이 발굴된 데서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살림집은 지역에 따라 틀을 잡는다. 조선시대에 틀을 잡은 살림집은 집중형 살림집(그림 1 참조)과 분산형 살림집(그림 2 참조), 절충형 살림집(그림 3 참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어느 내부 공간에서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열린 구조이다.

집중형 살림집은 모든 살림공간을 한 건물에 모아서 만든 집으로 혹독한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열효율을 높이고, 산짐승이나 도적떼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밀폐된 형태로 지은 집이다. 부속건물이 없이 살림채 하나에 거의 모든 주거공간이 들어가게 되고, 살림채의 규모가 큰 편이며, 내부에서 모든 공간이 연결되도록 지었다. 관북지방에서는 정주간이 있는 곁집이 발달해 왔다. 정주간은 정지(부엌)과 인접한 넓은 부뚜막으로 부엌과 벽이 없이 바닥의 높낮이로 구별된다. 온돌바닥인 정주간에서는 온 가족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기도 하고 여자들이 손님을 맞기도 한다. 강원도에서 영남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정주간이 없고 전부 방으로 이루어지거나, 건물 일부에 마루가 깔린 곁집이 발달해 왔다. 정주간 대신 안마루가 발달한 것은 여름철에 대비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화전민들이 나와나 굴피로 지붕을 덮은 살림집을 지어왔다. 이 너와집들은 건물 안에 봉당이라는 지붕이 덮인 작은 마당을 갖추고 봉당을 통해 각 방으로 드나들게 되어있다.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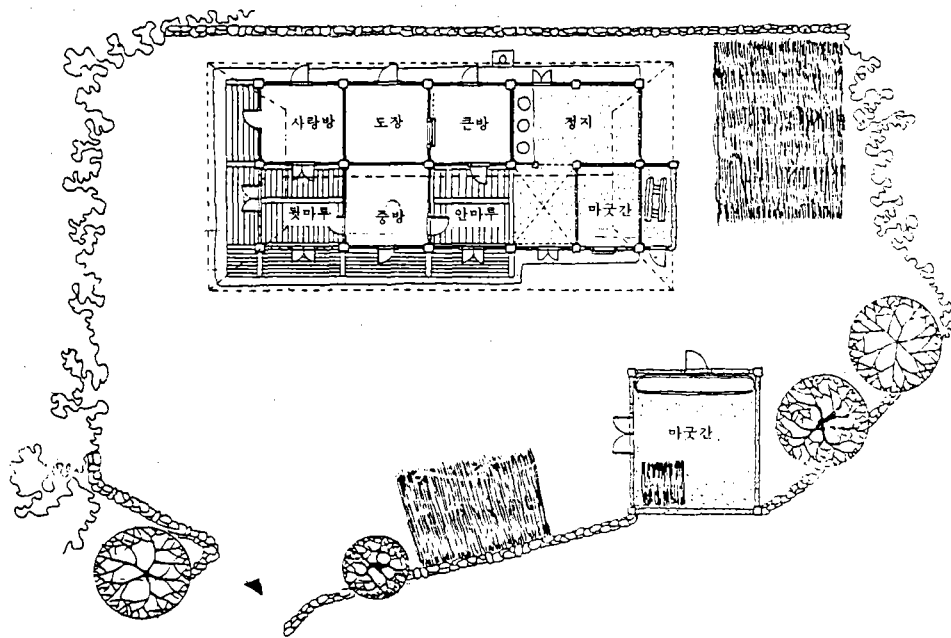


그림. 1. 집중형 살림집의 배치 예 (자료 : 강, 1991¹⁾)

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석줄백이 겹집이나 뜰 집을 짓기도 했다. 석줄백이 겹집은 방이 석 줄로 놓인 겹집으로 방수가 많고 마루가 넓은 집이며, 뜰집은 살림집 한복판에 지붕을 덮지 않은 뜰을 두고 '口'자형으로 방이 놓인 집을 말한다. 뜰집은 난방효과는 적지만 채광과 통풍을 좋게 한다. 위에서 말한 여러 살림집 유형은 한반도 동북부 뿐 아니라 경기도 북부를 거쳐 중부 서해안 섬 지방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한다. 한편 평안도지방에서는 건물 두 채가 나란히 마주 보는 쌍채집이 많이 분포한다. 쌍채집은 겹집은 아니지만 집중형 살림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쌍채집은 두 건물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마당이 있다. 집중형 살림집은 대부분 살림채 앞쪽에 대문과 담장을 두지 않고 뒤쪽으로 높은 담장과 문을 두어 헛간으로 쓰고 있다. 집중형 살림집에는 지붕밑에 반자틀과 고물반자를 설치하여 보온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엌에서 나오는 연기가 고물반자 위를 돌아 지붕 양쪽 마구리로 빠져나

가도록 지붕끝에 까치구멍을 뚫은 집도 많다.

분산형 살림집은 온난한 기후조건을 배경으로 넓은 마당을 두고 살림공간을 여러 부속채로 나눈 집이다. 들이 넓고 농업이 발달하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 데서는 살림집 경계가 분명해야 했고, 남에게 생활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살림집과 마당을 둘러싸는 대문과 담장이 발달하게 됐다. 살림공간을 여러 건물로 분산했기 때문에 살림채 규모가 작은 편이고, 통풍이 좋은 홑집이 발달했다. 그러나 부유할수록 부속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속건물수가 늘어나거나 부속건물이 겹집 형태를 이루는 예도 있다. 분산형 살림집은 안마당에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각 방에서 마당으로 드나드는 일이 많아졌고,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뒷마루가 발달했다. 뒷마루는 여름철에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보온보다는 통풍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반자가 발달하지 않고 창호가 크며, 홑집에 유리한 삼량가구법이 많이 쓰였다. 'ㄱ'자집은 주로 충청도를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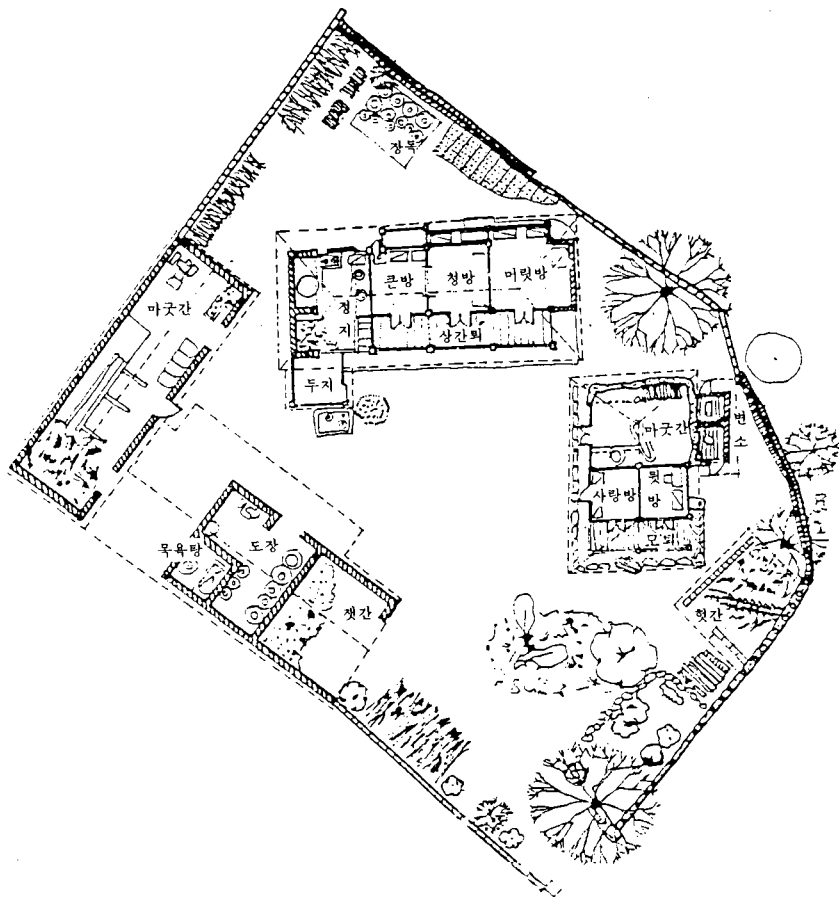


그림. 2. 분산형 살림집의 배치 예(자료 : 강, 1991¹⁾)

로 하는 중부 지방에 널리 퍼졌다. 'ㄱ'자집은 경기도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ㄷ'자집에서 'ㄱ'자 살림채만 남고 나머지는 부속채로 분리된 모습이어서 'ㄷ'자집에 뿌리를 두고 발달한 듯하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내륙 지방에는 대청이 있는 홀집이 많이 분포한다. 살림채는 부엌과 큰방, 대청, 작은방 순으로 한 줄로 놓여 있다. 대청이라는 열린 마루를 갖고 있는데, 대청은 마당에서 각 방을 이어 준다. 대청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 마루가 없는 홀집은 호서지방에 많이 퍼져 있다. 남동해안 지방에는 안침이 있는 홀집이 널리 퍼져 있다. 영남 내륙지방에 분포하는 대청이

있는 홀집과 공간구성이 같지만, 안침이라는 닫힌 마루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안침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쯤으로 대청과는 기능이 전혀 다르다. 전라남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지방에서는 가운데에 부엌이 있는 홀집이 널리 퍼져 있다. 부엌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을 두는데, 큰 방 옆에는 안침과 같은 마루를 두었다.

북부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집중형 살림집과 남부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분산형 살림집 문화가 맞닿은 지역에서는 절충형 살림집이 널리 보급되었다. 집중형 살림집에서 살림채와 부속채가 나뉘지면서 두 건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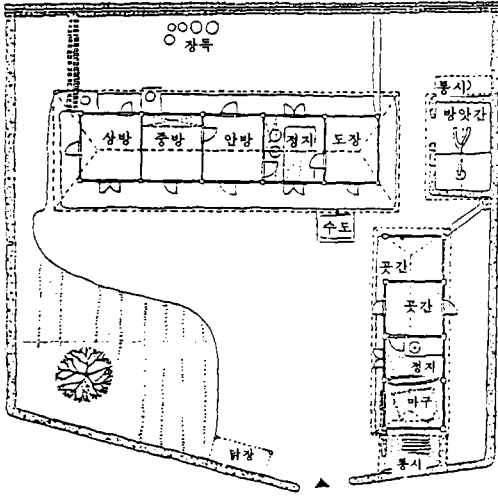


그림. 3. 절충형 살림집의 배치예 (자료 : 강, 1991¹⁾)

담장으로 연결되거나, 살림채 평면형태가 겹집보다 폭이 좁은 반겹집을 이루기도 하며, 평면형태는 홑집이지만 마굿간과 같은 부속 공간을 살림채안에 두기도 한다. 보온이나 방에 중점을 두다가 통풍이나 채광을 도모하는 형태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보인다. 제주도나 울릉도같은 섬지방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는 특수한 기후조건 때문에 절충형 살림집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방에서는 ‘口’자집이 잇갈리게 벌어지면서 담장으로 이어진 터진 ‘口’자집이 많다. 뜰집이나 뛰리집같은 ‘口’자집이 변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의 살림집은 열린구조로 되어 있어 주거생활과 영농생활동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조재료가 자연재료로 이루어져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사용후에는 자연상태로 되돌아가 환경오염이 거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근세를 살펴 보면,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 농촌은 전쟁으로 살림집이 많이 부서졌다. 농촌에서는 부서진 살림집을 근근히 고치거나, 새로 집을 짓더라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

았기 때문에 지방 대목들이 옛날 집짓는 그대로 지었다. 그러나 1971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농촌은 크게 바뀌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마을과 살림집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도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1972년부터 시작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담장과 지붕을 바꾸어나갔다. 위생에 불량하고 불품이 없다고 초가지붕은 헐리고 시멘트기와, 슬레이트, 함석이 그 자리에 얹혔고, 초목이나 흙, 돌로 된 담장이 시멘트 소재로 바뀌어졌다. 초가지붕이 사라지고 울긋불긋한 원색지붕이 없으면서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마을풍경이 생겼고, 비가 새거나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살림집이 됐다. 시멘트소재로 된 담장으로 둘러 쌓인 골목길은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웃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 정부는 지붕개량만으로 주택개량이 안된다고 하여 1978년부터 농촌 표준주택을 권장해 나갔다. 재정지원을 한다니 너나없이 지었지만, 이것은 딸림채를 고려하지 않은데다가 거실 중심으로 현관, 입식부엌, 화장실을 살림채안에 놓는 집중형밀폐구조로 되어 있어 농촌 살림집을 제대로 ‘개량’하지 못했다. 열린구조에 익숙한 농촌의 생활관습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닫힌구조는 영농생활동과 주거생활이 분리되어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구조재료가 모두 시멘트소재로 이루어져 집의 내구년한이 짧아지고, 사용후에는 폐기물이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었다. 급기야 1983년까지 보급해 온 농촌주택의 표준설계도는 슬그머니 폐기 처분하고, 1995년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992년, 1994년 두 차례 설계 공모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내놓았다. 이것의 성패여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시멘트소재로 짓고 닫힌형태로 된 농촌주택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우리의 농촌 살림집은 역사적으로 흙, 나무,

돌 등의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열린구조로 지어 생산 활동에 편리하도록 지어온 점을 중시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자연소재는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경재료이고, 열린구조는 우리의 자연환경과 自然合一思想에 맞는 자연친화형 구조이다. 이런 점이 만족되는 살림집이야말로 우리 農工人이 생각해야 할 농촌의 살림집이다. 세계적으로 생태건축, 환경공생건축, 환경친화형 건축 등으로 명명하며 흙 중심의 자연소재에 의한 지속가능한 건축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의 전통 살림집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미 만족하고 있고,

농촌에는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러한 집을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농촌에도 환경 및 생태보전적인 환경친화형 살림집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전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농촌 살림집을 생각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영환, 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 리화선, 1993, 조선건축사 1, 2, 발언
3.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편), 1993, 조선의 풍습, 학민사